



〈류현진〉



〈김광현〉

마운드 '좌완' 전성시대

▼ 방어율 1위

KIA 양현종

▼ 탈삼진 1위

한화 류현진

▼ 다승 1위

SK 김광현



마구마구프로야구

LG 봉중근·히어로즈 이현승도 타이틀 경쟁 합류

좌완 에이스들의 타이틀 경쟁이 뜨겁다. 좌완 양대 산맥인 류현진(한화), 김광현(SK)의 견제 속에 역시 좌투수인 LG 봉중근, 히어로즈의 이현승이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신에 양현종도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에이스로 급부상하는 등 올 시즌 좌투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지난해 다승왕을 놓고 경쟁했던 두 '괴물' 류현진(2008시즌 14승)과 김광현(* 16승)은 13일 현재 5승으로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달리며 여전히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탈삼진 부문에서도 두 선수의 가시성이 한창이다. 2008 시즌 김광현의 저지로 3년 연속 탈삼진왕 달성에 실패했던 류현진은 50개의 탈삼진으로 김광현(41개)을 따돌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두 국가대표 좌완의 타이틀 대결에 KIA 간판으로 떠오른 양현종도 가세했다. 올 시즌 선발로 합류해 6게임을 뛴 양현종은 1.

86의 평균자책점으로 부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평균자책점은 지난 시즌 윤석민(2.33)이 김광현(2.39)을 근소한 차이로 제압하고 얻어낸 타이틀.

윤석민이 초반 부진과 함께 마무리로 변신한 사이 2년 후배 양현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투수 타이틀을 놓고 좌완 투수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다.

팀 타선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김광현과 류현진은 올 시즌 각각 7경기에 등판해 똑같이 5승을 챙겼다.

자신의 등판 날 평균 6.57의 팀 득점을 등에 업은 김광현은 2.87의 평균자책점으로 지난 4월25일 이후 4차례의 등판에서 연달아 승을 기록했다. 류현진이 등판한 7경기 '홀런군단'의 득점은 52점, 평균 득점 7.43이라는 풍성한 지원을 받은 류현진은 셋 중 가장 높은 평균자책점(3.86)을 기록했지만 역시 5승을 거뒀다.

이에 반해 평균자책점 1위 양현종은 6번의 등판에서 평균 3.5점의 득점 지원을 받는 데 그치며 3

승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25일 삼성전 7이닝 무실점, 1일 한화전 7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고도 불펜의 난조로 눈앞에서 2승을 날리기도 했다.

안정된 변화구 제구로 150km 가 넘는 강속구의 위력이 더해진 양현종은 상대 타자들로부터 32개의 삼진을 뽑아내며 탈삼진부문에서도 공동 10위에 올랐다. 두 투수에 비해 한 경기를 덜 뛴 양현종의 이닝 평균 탈삼진 수는 0.83개로 류현진(1.13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김광현(0.87개)과는 비슷한 수치다.

'자신감'이라는 신무기까지 장착한 양현종이 타선 지원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된다면 신에 좌완 트리오의 타이틀 경쟁은 올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kwangju.co.kr



〈양현종〉

찬호, 첫 승

친정 다저스 상대 6이닝 2실점 호투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11개월 만에 선발 승리를 따냈다.

박찬호는 13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맞고 2점을 준 뒤 4-2로 앞선 6회말 1사 2,3루 타석에서 대타 그렉 톱스로 교체됐다.

타선이 7회 1점을 보태 5-3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박찬호는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은 올해 6번째 선발 등판만에 시즌 첫 승리(1패)를 거뒀다. 다저스에서 활약했던 지난해 7월2일 휴스턴과 경기에서 구원승 이후 첫 승리이며 작년 6월28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경기 이후 11개월 만에 선발 승리를 올렸다.

통산 118승(93패)째를 올린 박찬호는 은퇴할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가 보유 중인 메이저리그 아시아인 통산 최다승(123승) 기록에도 5승 차로 다가섰다.

옛 세 전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6이닝 동안 단 1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호투했던 박찬호는 두 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로 6이닝 이상 3점 이내로 투구)를 펼쳐 5선발 투수로서 입지를 굳게 다졌다.

박찬호는 101개를 던져 63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5회 잠시 허리 쪽 통증을 호소했지만 금세 회복했고 6.67이던 평균자책점도 6.00으로 끌어내렸다.

박찬호는 1번부터 4번까지 연속으로 등장한 다저스 원소 타자에게 1회 고전했다. 1회초 톱타자 후안 피에르에게 풀카운트에서 끝까지 우월 2루타를 얻어맞은 박찬호는 라파엘 페랄을 유격수 직선타로 요리했으나 올랜도 허드슨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실점했다.

중계 플레이 중 2루로 뛰던 허드슨을 협살로 잡아내 한숨을 돌렸지만 안드레 이디어에게 다시 좌중간 2루타를 맞고 오른손 타자 러셀 마틴을 2루수 땅볼로 처리하고 겨우 불을 껐다.

2~3회는 연속 삼자 범퇴로 막은 박찬호는 1-1 동점인 4회 다시 고비를 맞았다.

선두 허드슨과 마틴에게 안타를 맞아 1사 1,2루에 몰린 박찬호는 제임스 로니를 2루 땅볼로 잡았으나 맷 캠프에게 미묘한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허용하고 2점째를 줬다.

4-2로 역전한 5회에는 선두 클레이튼 커쇼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세 타자를 가볍게 요리했고 6회에도 땅볼 3개로 이닝을 마쳤다. 필라델피아 타선도 모처럼 제때 터져 박찬호의 마수걸이 승리를 도왔다.

필라델피아는 0-1로 뒤진 3회말 박찬호의 쓰리번트로 만든 1사 2,3루에서 세인 빅토리오의 땅볼로 1-1 동점을 이룬 뒤 1-2이던 4회말 안타와 볼넷, 더블 스틸로 이어진 무사 2,3루에서 지미 롤린스의 적시타, 라울 이바네스의 좌중간 2루타로 3점을 뽑아 4-2로 전세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오월의 태권왕' 대결 제11회 광주 5·18민중항쟁 추모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13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중등부 라이트급 김민규(상무중·청)와 김우현(백양중·홍) 경기에서 투수수가 발차기를 시도하고 있다. /최혜민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하키 대회 3연패

협회장기 전국 남녀선수권 5명 태극마크 '기쁨 두배'

조선대 하키팀이 대회 3연패의 부흥을 발휘했다.

조선대는 13일 경북 성주 국제하키팀에서 열린 제28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팀대회 남자대학부 결승에서 힘겹게 한국체대를 꺾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사진) 조선대는 이날 1-1로 경기를 마쳤으나 다득점 승리 원칙에 의해 한국체대 보다 1점 앞서 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이 대회 정상 자리를 지키게 됐다. 동시에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춘계하키팀대회 결승에서 한국체대에 당했던 패배의 아픔을 설욕했다.

이날 경기는 결승전답게 초반부터 밀고 밀리는 팽팽한 승부였다.

균형을 먼저 깬팀은 조선대. 전반 35분 이기찬(3년)이 페널티 코너(PC)를 성공시키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한국체대의 과장적인 공격이 펼쳐졌지만 조선대는 선방을 거듭하며 우승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조선대가 후반 35분 아쉽게 동점골을 허용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말았다.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채 전후반을 끝냈다.

순간 조선대는 지난 춘계대회의 악몽이 떠올랐다. 당시 결승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다득점 승부에서 아쉽게 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조선대가 1점 앞선 것이다.

이로써 불과 2개월전의 패배를 말끔히 씻어버린 조선대는 힘차게 우승 행군대를 쳤다.

이날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조선대 수비수 이석호가 뽑혔으며 4골을 기록한 이기찬이 득점상, 그리고 김종이 감독이 지도상을 각각 받았다.

조선대 김종이 감독은 "지난 춘계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이 선수들에게 또래 큰 힘이 된것 같다. '다시 해보자'는 특유의 근성을 앞세운 조직력이 되살아나게 주효했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이날 기쁨 두배였다. 오는 6월7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동시 개최되는 세계주니어월드컵 선수권대회에 무려 5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이다. 강문규(3년)·김주훈·전병진·이상재(이상 1년) 등 4명의 선수와 함께 김종이 감독은 대표팀 코치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된다.

지난 1972년 창단한 조선대팀은 그간 국가대표 50여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하키팀이다. 안용덕 부장교수와 김종이 감독도 국가대표 출신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국남자하키 2010년 월드컵 준결승 진출

한국 하키가 제8회 남아시아하키팀선수권대회에서 방글라데시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회 예선 A조 방글라데시와 경기에서 9-0으로 이겼고 선수단이 13일 알려졌다.

김병훈은 혼자서 4골을 넣으면서 수훈감이 됐다. 2승1무승부가 된 한국은 예선 A조 1위로 B조 2위인 중국과 결승 진출을 놓고 14일 맞붙는다. /연합뉴스